육조혜능 주석한 남화사 주지 불원 스님 방한

육조혜능이 주석하며 법을 펼쳤던 중국 남화사 주지 불원(佛源)스님이 지난달 19일 화계사 보살계수계 법회에 증명법사로 참석키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남화사에는 혜능스님의 가사와 주장자 등 유품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전한 불원스님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육조스님의 가르침이라고 강조했다.

"남화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은 조사스님의 진리를 이어받

"남종禪 살아있는 한국 불교에 감동"

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조스님의 등신불도 모시고 있습니다."

9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불원스님은 통도사와 해인사 불국사를 참배했다.

"한국스님들의 투철한 수행정진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불교가 선불교의 정수를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한국과 중국 두 나라 불교의 친근함을 눈으로 볼 수 있어 기뻤다고 소감을 밝힌 불원스님은 앞으로 더욱 긴밀하게 한중불교가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길 바란다며 지난달 27일 출국했다.

1941년 21세의 나이로 출가한 불원스님은 남화사와 운문사 주지를 비롯해 중국불교협회 상무이사 광동성정치협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운〉

보살행이 숨쉬는 현장 — 보문지장회

"보살님 받으세요. 너무 고마워서 드리는 겁니다."

"아니에요. 수의 값을 받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성의는 고맙습니다."

막무가내로 내미는 손님의 성의 표현에 끝끝내 수의값 외에는 받을 수 없다고 겸손해 하는 보살들.

요즈음 탄허불교문화재단 산하 신행단체인 보문지장회 회원들이 모여있는 삼일선원 뒷방에는 고마움을 표하려는 사람들과 그저 수행의 한 방편으로만 믿고 수의를 짓는 보살들과의 기분좋은 옥신각신 다툼이 끊이질 않는다.

(얼굴 가리개), 속바지, 속적삼, 겹바지, 겹저고리, 턱받이, 베개, 손톱·발톱·머리카락을 담을 주머니, 대님, 허리띠, 이불, 요, 버선, 두루마기, 그리고 이것들을 다 갖춰 입은 상태에서 시신을 싸는 장단에 이르기까지 20여개에 가까운 수의에는 보살들의 정성과 염원이 가득 담겨 있다. 한땀 한땀 정성을 실어 만든 수의는 일반 시중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미 1백50여벌이나 판매됐다. 수의가 완성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만도 1백여명이 넘는 실정이다. 그저 수의

"수의 만드는 공덕 이웃에 회향"

수익금은 스님 복지기금으로 활용

◇삼일선원 뒷방에는 수의 만들며 공덕 짓는 보문 지장회 보살들의 정성과 염원이 가득하다.

작년 10월부터 수의 만드는 공덕을 짓고 있는 10여명의 보살들은 매일 아침 9시면 나와 부처님전에 한결같이 합장하고 "일체의 잡념을 끊고, 지난날의 빚을 소멸토록 하여 주시며 오늘 지은 공덕은 보다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하소서"라며 간절한 예불발원을 올린다. 그리고선 보살들은 한땀 한땀 정성스레 수의를 짓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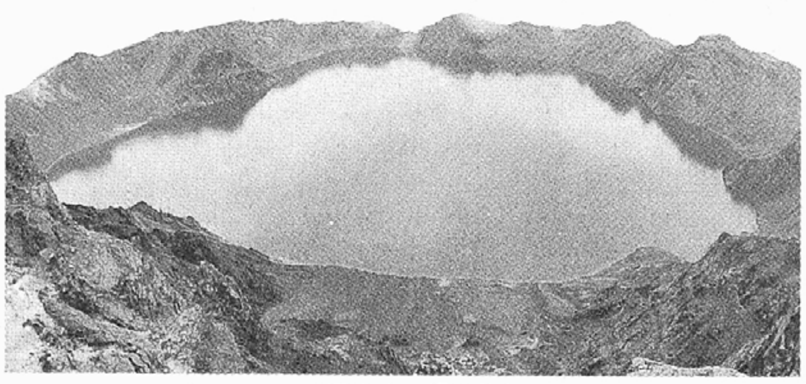
수의를 만들기 위해 매일 어김없이 나오는 보살들은 일체의 댓가를 바라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들이 먹을 쌀과 부식을 들고 나와 아플 겨를도 없이 일을 한다. 보살들이 하루 온 종일 만들어 내는 두건(모자), 면모

가 제 갈곳에 가기만을 바랄뿐 수의제작에 드는 실비 외에는 일체의 대가를 마다하는 보살들은 어느 때인가는 자신들에게도 다가올 죽음을 오히려 기쁨으로 준비하고, 공덕을 나누며 그들의 노후를 스스로 아름답게 가꿔 간다.

눈이 어두워 바느질을 못하게 될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할 것이라는 보문지장회 박명혜회장은 "얻어지는 수익금은 지속적인 수의제작은 물론 스님들의 노후를 위한 시설마련 기금으로 쓸 예정이다"라며 무주상보시의 정성과 큰 사랑을 전했다. (02)238-5253

도필선 기자

신행수첩



◇민족의 성산 백두산 천지

자비로 꽃피는 호국불심 '군불교 후원회원 되자'

국토방위의 숭고한 사명을 띄고 정다운 가족 친구들과 떨어져 생활하는 젊은이들에게 종교가 주는 영향력은 일반 사회에서와는 비교할 수 조차 없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이는 평생에 걸쳐 이어진다. 60여만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군은 한국불교의 미래가 걸린 최우선 포교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군종법사 1인당 1만여명을 상대하는 턱없이 부족한 군종법사, 군법당, 군포교에 절실히 필요한 불교서적 염주 호신불의 부족 등 아직도 불교의 군포교는 어려운 실정이고 타종교에 비해 효과도 미약한 형편이다.

군포교의 제반활동을 지원하는 전문후원단체인 군불교진흥회(회장 박상길)는 이같이 어려운 군포교의 현실을 극복, 궁극적으로 전 국군의 불자화를 위해 후원회원을 모집한다. 보람있는 불사를 위한 드러나지 않는 보시와 봉사의 참된 기쁨을 함께 할 불자들은 진흥회 사무국으로 연락하면 된다. 후원회비 납부처=우체국 010025-0102390(예금주: 군불교진흥회), (02)749-8646.

전법에도 자격증시대 포교사 자격˙고시 준비

현대사회는 자격증시대다. 즉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 우위시대인 것이다. 교계도 예외는 아니다. 오는 9월, 실시될 포교사(법사) 고시가 그것이다. 대중불교 생활불교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삼보사 부설 삼보학교에서는 금번 조계종 총무원에서 실시하는 포교사 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고등과(천수경, 반야심경)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강좌는 오는 7일부터 7월28일까지 매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며, 삼보사 주지 지원스님이 강의한다.

(02)352-6406

민족의 뿌리를 찾아서 월간정토 백두산기행

조상들의 얼이 살아 숨쉬는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월간 정토(발행인 법륜스님)는 7월23일부터 30일까지 '제2차 민족의 성산 백두산 및 발해 유적지 역사기행'을 마련한다.

'민족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실시되는 이번 기행은 백두산 천지, 장백폭포, 고구려 환도산성, 국내성 광개토왕비, 발해 서고성등을 비롯 발해의 유적지를 두루 돌아보게 된다.

한편 〈조선역사〉〈고구려 발해 유적지 소개〉〈반일투쟁 유적지 소개〉등 3권의 책이 답사기간에 발행돼 더욱 의미가 깊다. (02)573-0458

노인 우대하는 불국정토 '울타리 무료진료원' 개원

노인이 대접받는 사회야말로 우리 모두가 이룩하고자 하는 불국정토가 아닐까.

지역복지사업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개금종합사회복지관(관장 범산스님)이 '울타리 무료진료원'을 개원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건강을 살핀다.

개관이후 매주 일요일 노인들을 위한 무료진료활동을 펼쳐온 사단법인 불국토부설 무료의료봉사회인 울타리회의 전문의들과 함께 뜻을 모아 정식 개원한 울타리 무료진료원은 각종 치과 질환과 노인질환 치료, 건강상담도 함께 병행할 계획이다.

(051)893-5034

조계사 단오잔치 12일 민속놀이 다채

창포에 머리 감고, 오색치마 흩날리며 널 뛰는 우리의 전통 민속놀이가 그리운 때다.

조계사(주지 현근)는 오는 12일 단오절을 맞아 조계사 주변 어른들을 초청, 단오잔치를 연다. 조계사 신도회와 원심회, 청년회 후원으로 마련되는 이 행사는 1부 문화공연, 2부 민속놀이, 3부 대중공양으로 다채롭다.

(02)732-2115

◇차밭기행단은 지리산 야생차밭에서 차잎 채취 요령을 듣고 차잎따기대회를 가졌다.

푸른차밭에서 속진 씻어내

본사 '지리산 차밭기행' 40여명 참가 성료

우리문화를 알고자하는 이들은 많다. 그러나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다. 지난달 28일 현대불교신문 주관으로 우리 문화를 찾는 이들을 위한 작지만 의미깊은 자리가 마련됐었다. '지리산 차밭기행'.

전통차를 사랑하고 즐기는 40명의 차인들이 쌍계사참배와 함께 지리산 야생차밭을 방문했다. 차잎은 잎눈이 상처받지 않고 일창일기로 따야하는 것을 배웠다. 일일이 손으로 따야하는 엄청난 노동을 체험하며 그동안 마신 차가 결코 비싸지 않다는 것도 알았다. '지리산 차천지' 제다공장에서 직접 차잎을 덖어가며 제품으로 완성되는 것을 지켜봤다. 이렇게 제조된 차를 시음하다 보니 똑같은 차이건만 또다른 맛을 감지할 수가 있었다.

하루의 차밭체험기행은 차에 관한한 전문가가 되도록 하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우리문화체험기행은 새로운 기행문화로 신선하게 다가왔다.

'95 신행 캠페인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금주의 주제

포교

'불자의 의무' 가까운 이웃부터 교화

불퇴전의 신념으로 '부루나 존자' 돼야

불자들은 항상 포교를 해야 한다고 저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사실 성과적 측면에서 보면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부처님께서는 성도후 깨달음의 즐거움을 혼자 간직하기보다는 도든 중생들에게 전해야겠다는 원력을 세운 후 갠지스강을 건너 녹야원에서 최초 설법, 5명의 불제자 교화를 시작으로 45년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교화하는 등 전법의 수레바퀴를 한시도 멈추지 않았다.

기독교의 경우 도가 지나칠 정도로 전도에 광적이다. 전도는 믿음의 실천이고 신도라면 반드시 해야 할 필수덕목으로 여겨 때와 장소에 구분없이 전도를 행하고 있어 일반인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한다. 그러나 그만큼 전도가 곧 종교의 생명과 같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며, 극성일 정도의 전도가 기독교세의 급성장에 한몫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린이 포교를 비롯 각종 지역 포교활동을 도맡아 하고 있는 진옥스님(여수 석천사주지)은 "현재 불교계는 몇몇 개인을 중심으로 포교활동에 나서고 있으나 대중의 요구에 비한다면 너무나 미비한 실정"이라고 말하며 "포교는 승속에 관계없이 불자라면 반드시 해야할 의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한다.

포교를 통해 한사람의 불자를 새로 만들 때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정법인화보살(보현사 신도)은 "포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포교에 있어 가장 큰 장애"라고 지적하고 "주변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포교의 대상이고 지금 있는 이곳이 포교의 도량이라고 여겨 먼저 따뜻한 손길을 펼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포교사다"라고 말한다.

포교활동을 '누가 하겠지'라고 다른 사람의 몫으로 돌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해야 한다'라는 부루나 존자와 같은 포교에 대한 불퇴전의 신념을 지녀야 한다. 이처럼 포교가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것은 부처님의 무량무변한 법음으로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깨달음(成佛)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더이상 불교가 한시대의 문화적 존재로 인식되거나 목소리를 높이고자 하는 포교로 치부되지 않도록 사부대중이 함께 어우러져 '포교하기'라는 금강같은 원력을 세워 무소의 뿔처럼 용맹정진해 보자.

게시판

▲자원봉사자 모집=길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제원)은 무의탁 노인 및 저소득가정을 위한 가사·반찬서비스에 동참할 자원봉사자를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 주1회 3시간 봉사가 가능한 불자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02)985-0161

인사 불교방송은 지난달 24일자로 일부 간부에 대한 인사개편을 단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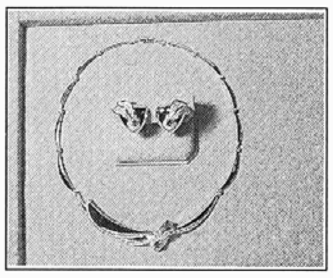
강종훈 기획실장이 총무국장으로, 이광 보도국장이 보도위원으로, 최찬기 총무부차장이 기획심의실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화혼 이재숙 기자(법보신문사)가 오는 11일 정오 어린이대공원 A야외결혼식장에서 최중홍씨와 화촉을 밝힌다.

(02)466-4978 (02)725-7010

J·E·W·E·L·R·Y ● 청우 ● C·H·U·N·G·W·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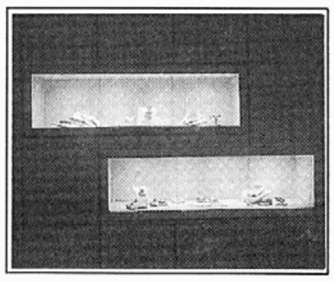
' 오직 당신만을 위한 디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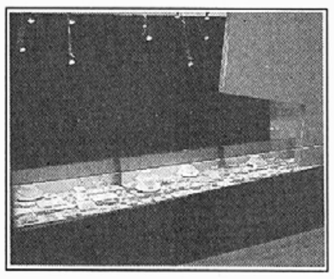


정보가 다양해지고 생활 수준이 높아진 현대에 와서 사람들의 미에 대한 의식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석 디자인도 지니고 있는 사람의 개성을 중요시하여 만들어지는 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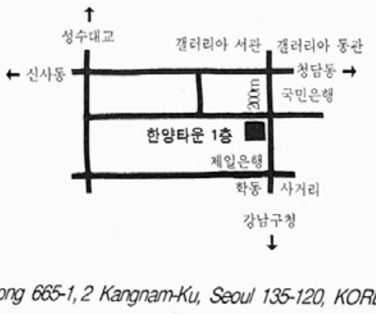
세련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청우'의 제품들은 서정적인 주제의 디자인과 독특한 예술적 감성표현이 그 특징입니다.

각 개개인마다의 독특한 스타일 캐치, 보석의 가치를 돋보이게 하는 디자인, 이것이 '청우'가 연출하는 이미지 창출방법입니다.





녹음이 짙어져가는 계절, 클래식한 우아함과 세련된 현대감각이 함께 어우러진 곳 청우에서 당신만의 개성을 찾아보십시오.



'청우' 유자야 씨 전시경력

1971-1972	국전 서양화 부문 입선 20, 21회
1976	파리 니텔재산 공모전 입상
1977	파리 Cite International des arts 주최 전람회 출품
1978	불란서 전국 사진 공모전 출품
1979	파리 프리마그 로지에 공모전 입상
1980	파리 화랑 전람회 출품
1977	불란서 예술원 공인 미술작가
1980. 6	제1회 개인전(신세계 백화점 화랑)
1982	한국 공예가회 출품
1983	한국 공예가회 출품
1984	한국 공예가회 출품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65-1, 2 한양타운 107호 / 우편번호 135-120 / TEL 3442-4434~5 1F, 7 Hanyang Town, Sinsa-Dong 665-1, 2 Kangnam-Ku, Seoul 135-120, KOREA